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5>



황우석 박사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5월 20일 황우석 박사가 배아줄기 세포를 만들어내는 데에 성공하였다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우리를 보듬어 주는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그 발표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들이 별반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불치병·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인류에게 무병장수의 미래가 좀더 일찍 열리게 되었다는 말에는 귀가 번쩍 뜨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의학계와 과학계의 성과가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적합성·적법성의 마지막을 종교에 묻곤 합니다. 불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황우석 박사가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부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저 역시도 지금 부처님이 곁에 계시다면 서둘러 달려가서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저 경전을 뒤적이며 조금이라도 연관된 말씀은 없는지 어떤 대법집 땀입니다. 사람이 병을 얻게 되면 지극히 간호하라는 말씀은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병자를 돌보아 주는 이는 곧 나(부처님)를 돌보는 것이요, 병자를 간호하는 이는 곧 나를 간

를 찾아보고 어떤 약을 먹어야 그 병을 떨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무거운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처음에는 잊지 못할 극형이라도 받는 듯 그에 함겨하지 못하고 끌려가지만 사람들의 본능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해결책을 찾아 다닙니다.

이번 황우석 박사의 개기는 그런 면에서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는 루게릭병 환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가 중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 느닷없이 이들도 생소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의식은 또렷한데 육체가 점점 굳어져 오고 말기에는 호흡장애까지 일으켜 죽음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는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게 닦친 그 무서운 병을 그 사람이 전생에 지은 죄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말일이겠습니까? 그 아픔이 나와 내 가족에게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전생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서 그렇게 결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1500명이 넘는 루게릭병 환자들이 있으며 이 병에 걸리면 대개 발병 후 5년 내에 사망한다고 하니 루게릭이라는 진단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과까지 생각

선지의 연구와 실험 대상이 된 소중한 ‘생명’ 악한 자에 의해 존엄성 파괴될 가능성 존재

호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보다 더 큰 보시를 보지 못하였다. 그리하면 너희들은 큰 복을 얻을 것이다.”(<중일아함경> 한글장9권93쪽, 속약)

또한 경에서는 여러 가지 질병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다양한 원인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전생의 악업에 따른 과보’라는 결론을 내린 경설도 눈에 띄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아직 과학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내려진 이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치의 병이라 여겨졌던 병들이 차츰 그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할 때에야 하늘의 벌이라 하니, 전생의 업보가 두터워서 그렇다니 하지만 원인을 찾고 보면 그런 식의 결론이 얼마나 무지하고 황당한 것이었습니까.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의지를 일으켜 줘야 하는 쪽으로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를 쉬지 않고 생각하며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지닌 중생이라면 그는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병에 걸리면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그 이유

해보면 훨씬 많은 숫자의 환자들이 존재하였고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번에 그 청년을 만나 난치병 환자들의 반응을 물어보았습니다. 당장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막연하지만 하던 삶에 출구가 보이는 것 같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어서 임상실험이 순탄하게 끝나 많은 이들이 무서운 병에서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명’은 신의 영역이기에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이 처음에는 선의에서 연구와 실험의 대상이 되었다가 자칫 악한 의지를 가진 이들로 인해 그 존엄성이 부서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끊임없이 한계에 도전하고 그 한계를 열어야 하는 것은 사유를 할 수 있는 중생의 고유권한입니다만 그 고유권한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마지막 가치가 흥정의 대상이 되거나 노리개로 전락해버리면 그 재상 또한 인간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정(통국역경원 역경위원)



화산 스님은 ‘하심’ 이어말로 더불어 사는 지혜이자, 가장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말한다.

5월 말, 꼭 3년 만에 화산 스님을 다시 뵈었다. 예전의 정정신신 모습 그대로다. 자기를 바로 보라는 그대로 스님 말씀을 이날 스님을 만나기 전 자료를 보면서 다시 되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무엇을 어떻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다 생각난 것이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다. 넓게 쓰면 한없이 넓어지고, 좁게 쓰면 바늘구멍보다도 더 좁아진다. 이걸 알고 있는데도 살면서 바늘구멍처럼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다. 그러다가 곧 후회하곤 하지만,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보니 도무지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여쭙었다. ‘마음’은 어떻게 쓰는 것인지.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존자하고 부처님하고 대화한 것이 있었어요.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자식과 같이 잘 다들어서 깨치게 하고 잘 보살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러하옵니까?”하고 묻자 부처님께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수보리존자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에 의존해서 사는데 어떤 것이 참마음인지 말씀해 주십시오”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마음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핵심인데 그것을 모르고 사는 게 중생이요, 그러니 핵심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모든 생활이 그대로 마음인데, 그 마음 말고 별 것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곧 이 마음이고 들어 아니며, 모든 중생이 다 같은 마음인 것입니

스스로 강이 되어 세상 만물과 함께 흘러가자



지상 백고좌

화산 스님

(대구 보광원 조실)

다.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법 가운데 근본이요, 일체 모든 기묘하고 미묘한 본질입니다. 이것은 크다고 해도 큰 것이 아니요, 작다고 해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불교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백 가지 죄를 내고 천 가지 방편을 써서 이 몸통이 위해서 살지만 이 몸통이라는 것이 헛것 가운데도 가장 헛것이요, 하잘 것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가장 하잘 것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성이 흥만해 우주에 이저러지지 아니하고 사방에 두루하는 법식을 일면 그 이치를 알 것입니다.

서로 얽혀 네것 내것 없는 넝쿨처럼

먼저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하심하세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본성을 찾는 핵심입니다. <금강경>에 사상(四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상은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말하는데 이 네 가지 상에 빠지면 자기를 바로 볼 수가 없어요.

아상은 거저된 나를 보고 진실된 나로 착각하는 것이요, 인상은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중생상은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수자상은 일체 모든 것을 시비분별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공부하고 불법을 안다면 아상도 인상도 중생상도 수자상도 없는 것이니, 그 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없애는 것이 ‘진여인(眞如人)’ 즉 ‘참사람’이라는 얘깁니다.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까요? 하심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참사람이 되려면 하심을 해야 합니다.

스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평소 품고 있었던 의문을 여쭙었다. “그러면 하심하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자 스님께서 “그렇지, 그게 어렵지” 하시며 웃으셨다. 그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는 표정이었다. 스님의 말씀이 이어졌다.

기자님도 주위 사람이 있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내외간도 있고, 친구도 있으시겠지. 그 사람들이 모두 주위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두 말할 것도 없이 내 주위사람을 항상 편안하게 즐겁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심입니다. 하심은 별 게 아닙니다. 하심을 해야 내가 편안해요. 내가 편하려면 하심부터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기자님이 친한 친구와 다투었어요. 그러고 돌아서면 마음이 편치

●坐禪三昧經 구마라집 한역 · 요산지안 감수 · 자웅 역주 | 신국판 | 값 9,000원

좌선삼매경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은 구마라집이 402년에 번역한 것으로 초기 선경(禪經)을 대표하는 경이다. 좌선입문자로서의 구체적인 수행지침이 실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선수행을 해야 하는 이유, 탐진치 삼독에 빠진 이들을 위한 관법(觀法), 선수행자가 지나야 할 윤리적 행위와 중생들의 근기에 맞는 다섯 가지 관법(觀法),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아우르는 성문선(聲聞禪), 연각선(緣覺禪), 보살선(菩薩禪) 등 대·소승의 선법이 조직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어 수행인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경전이다.

구마라집(鳩摩羅什 Kumārajīva : 344~413) 인도 구자국 사람으로 중국 대표적인 역경사 중 한 분. 구마라집의 역경활동에 의해 비로소 중국은 대승불교 철학의 전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대승반야경』, 『묘법연화경』, 『아비타경』, 『대자경』, 『금강경』, 홍수의 『장문』, 『삼이문론』, 『태지도론』 등을 포함하여 300권 이상의 대법역사업을 완수하여 중국 불교에 결정적인 초석을 놓았다. 그의 번역은 그의 이전 것들에 비해 사상의 내용의 전달이나 문체가 뛰어나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다.

불광출판부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02)420-3200 전승 (02)420-3400 http://www.bulkwang.org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관공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탐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 마이산 탐사의 탐영제

진안 마이산 탐사 063) 433-2900, 0303 432-0652, 0072

않지요? 서로가 이해했더라면 편안했을 텐데 말이요. 내가 제일인 것처럼 떠들다보면 내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상인데, 아상을 버리려면 하심을 해야 합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배우는데도 마음을 비워야 옳은 것이 남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곧 하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것처럼 한편으로는 일체 모든 증생을 자식과 같이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체 모든 증생을 부모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웃음을 단정히 해 보세요. 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상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를 위하고 남을 위해 도움을 줄 때 도움은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도 충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참 충성이예요.

이 세상 살고 가면서 이름 없이 살고 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명예를 남기려는 것은 상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하심이에요. 하심이라는 것이 별 게 아닙니다. 하물며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하심하고 또 하심해야 합니다. 먼저 고개 숙이고, 먼저 인사하고 이것이 하심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지극한 도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별 게 아니면서도 하심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가자님은 자기 존재를 사물에 비유한다면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계곡에 흘러가는 물이다. 강물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어떤 것

내 마음 편해지면 남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자기 자리 알고 도리대로 살면 걸림없어요

입니다. 위에서 나뭇잎이 떨어려 오든, 돌이 굴러오든 자꾸 쫓겨서 내려 보내지요. 그래서 강은 맑은 것입니다. 나는 강물이다, 나는 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심입니다.

병률을 본 적이 있으세요? 포랑을 사이에 두고 병률 두 개가 있는데 이쪽 병률은 저쪽 병률을 감아주고, 저쪽 병률은 이쪽 병률을 감아주지요. 네 병을 대로 감아라 하고 서로 거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무가에(無我) 無) 무가에' 입니다.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 '무가에 무가에'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에는 서로 얽혀서 네 것 네 것이 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병률을 버릴 때 우리는 얼마나 즐겁습니까, 대자연의 이치는 이렇게 위대하지요. 우리도 아옹다옹하지 말고 서로 돕고 편하게 해주면서 하나로 얽혀지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서로가 즐겁고, 이것이 바로 하심이에요.

부처님은 일체증생을 '수순(隨順)' 하셨습니다. 증생의 뜻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순할 수 있습니까. 각기 다른 그 마음을 다 따라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언제나 따라주셨습니다.

<화엄경>에 보면 53선지식이 나오는데 선재등자가 53선지식을 만나고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물었어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이죠. 그랬더니 보현보살이 "나는 열 가지 원이 있어 모든 부처님을 수순해서 다 받들고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재등자가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고 다시 물었어요. 보현보살의 답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 수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보현보살의 말대로 끝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증생이 다 부처님이 될 때까지 예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심이에요. 하심하는 것이 보살정신의 첫째 조건이요 수행자 정신입니다. 일체증생이 다 성불할 때까지 하심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심에 어디 끝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가 물었던 대로 하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나. 불교는 마음 닦는 공부입니다. 수순증생(隨順衆生)이라, 쉬운 말로 주위사람을 편안케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집안 어른을 그렇게 모시기 어렵지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화도 내고 하는데 그 고비를 넘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때 참선을 해보세요. 참선은 불교의 최고 수행법입니다. 열불도 하고 경전도 읽고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 남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선은 또 어디 쉬운가요. 그러면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잡습니까. 열불을 해도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경을 봐도 머리 속에 잘 들어오지 않고 참, 뜻대로 잘 안되지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강이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품으란다. 화산 스님은 누구에게든 강처럼 살라고 강조한다.

주위사람 편하게 하는 것하고 공부하는 것하고 어떤 게 쉬운가요. 참선하고 열불하고 경전 보는 것이 더 쉽지요. 주위사람 즐겁고 편안케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어려워요. 주위사람 즐겁고 편하게 하면 참선도 잘되고 열불도 잘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강이 되고 계곡이 돼야 합니다. 강은 무엇이든 흘러진 그대로 퍼내려 보내주죠.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넉넉처럼 가만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길 잘 알아야 합니다.

화산 스님은 나무를 무척 좋아하신다. 강물처럼 살라는 스님의 말씀이 나무와도 무관치 않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를 여쭙었다.

나무, 좋아하지. 생각해 보면 나무처럼 늘 그 자리에서 초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곤 해요. 모든 것은 다 자기 자리가 있는 법입니다. 높으면 높으면대로 낮으면 낮으면대로 설 자리가 있어요. 일체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성을 지켜가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분하며 도리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자기 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세상에 걸릴 게 없겠지요.

스님은 세상을 사는 가장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가 다르겠지요. 세간에서는 학문을 두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또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출세간에 서는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잘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죽어도 죽는 게 없고 살아도 사는데 걸리지 않고 사는 것이 참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얻려면 공부할 많이 해야 해요. 세상이 영원한 것은 없습디다. 잠깐 봐야 하는 것이니 열심히 공부해야죠.

글=한영우 기자 · 사진=박재환 기자

쉽고 재미있는 법문으로 유명

화산 스님은 화산 스님은 선(禪)과 교(敎)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부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불자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런 소신은 화산 스님의 이력에서도 잘 드러난다. 화산 스님은 1919년 경남 양산에서 태어나 17살에 통도사 자장암에서 풍조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한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그 후 일반 일체선문학교와 성원관대 철학과를 졸업하는 등 불교와 철학을 폭넓게 공부했다. 그리고 통도사 강주를 맡아 후학을 지도했으며, 1962년에 대구에 보광원을 창건하고 현재까지 이곳에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참선지도를 하고 있다.

소담하고 부지런한데다 친근한 성격이어서 많은 불자들이 따른다. 대구에서만 40년 넘게 불자들을 지도해오면서 지역에서 깊은 신뢰를 얻고 있다.

일기 쉽고 재미있는 법문으로도 유명한 전국 곳곳에서 법문을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례는 후학에게 자리를 물려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문을 자제하고 있다.

평상시 나무와 꽃을 좋아해 추운 겨울이면 아랫목을 화분에게 내 줄 정도로 인정이 많은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요즘은 오전에 참선 하고 오후에 불자들을 지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오 스님 (下)

법오 스님은 친화력이 좋다. 만나는 사람마다 금방 친구가 된다.

선원의 공양주 보살들은 선승들처럼 약간 콧대가 높고 무뚝뚝하다. 그래서 스님이 잘 살지 못하고 맘에 들지 않으면 스님들하고 싸우는 공양주도 있다. 그러면 보살도 법오 스님을 만나 며칠만 지나면 "우리 스님! 우리 스님!" 하며 따른다.

스님은 매사를 좋고 긍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선원 분위기가 어둡거나 침침한 것은 더욱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당시 내가 하안거를 지낸 선방이 그랬다. 출세간 속의 세간이라고 해야 할까. 선원에는 '용'도 모이고 '뱀'도 모이고 '뱀 꼬리'도 모인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다보니 가끔씩 분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면



그림 · 문병성

입승(立繩)이 나서서 대중들의 소란을 수습하고 정리한다. 그러나 중립을 지켜야 할 입승까지 이 세파에 휩쓸렸다면 어떻게 할까.

선원에 법랍이 많은 선덕(禪德)이나 한주(閑主) 스님들이 많이 계시면 위에서 꼭 눌러서 이런 분란도 잘 수습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면 안거가 개질 수가 있다. 다름으로 인해 안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결망을 써서 떠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서로를 알게 되자 인간의 상(相)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원은 슬렁거렸고, 그런 분위기는 반월이 되어 더 심해졌다.

그러자 법오 스님은 그런 분위기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공부나 하겠다고 입을 굳게 닫고 큰방으로 들어갔다. 스님들이 끼리끼리 모여 파발을 이루는 풍에도 법오 스님은 홀로 큰방에 앉아서 공부를 했다. 대중들은 가끔씩 큰방에서 혼자 정진하는 스님을 보곤 했다.

그러다가 힘의 양 축이었던 한 스님이 뒷방 공사를 자제하고 법오 스님과 같이 가행정진에 들어갔다. 파발을 짓는 것이 부처님 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법오 스님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두 스님은, 남들이 볼을 끄고 잘 때도 어둠 속

에서 두 시간씩 더 공부했다. 대중들은 모르는 제했지만 다 보고 있었다. 차츰 선원에는 쉬는 시간에도 잠담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하나 둘 스님들이 가행정진 수행에 동참했다. 나도 고트머리에 동참했다. 그러자 선원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잠해져 버렸다.

해제할 무렵 스님들은 서로 서로 이해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안거를 마무리했다.

중간에 그 상판스님이 마음을 내기는 했지만 시작을 한 스님은 법오 스님이었다.

스님은 또한 주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끝까지 격려해주고 힘을 주는 스님이다. 타고난 성격이 좋은 것도 있지만 만사에 긍정적이다. 어느 설날에 원주스님이 급한 일이 있어 차량운행을 못하게 되자 나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내가 차 운전을 하고 눈이 쌓인 안자를 내려와 인근 마을에서 물건을 사고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 당시 내가 정진하던 그 암자는 눈이 많이 오고 길이 험했다. 차 안에는 법오 스님을 위해서서 네 명의 스님이 타고 있었다. 평지에는 눈이 녹아 바뀌어

선원에 파벌 생기자 홀로 정진 스님 하나 둘 동참해 잠잠해져

장착했던 체인을 벗기고 다니다가 그냥 짚에 오르게 되었다. 그 체인을 벗긴 것이 실수였다.

몇 번의 커브를 돌고 남퍼러지 길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하거나 뒤로 곤두박질하기 시작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았고, 다행히 눈이 녹은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들면서 차는 아슬아슬 남퍼러지에 걸렸다.

렉카차가 차를 끌어들 때 나도 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바로 전에 사고를 당할 뻔 했으므로 손과 다리가 심하게 후들거렸다. 그때 법오 스님은 나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할 수 있다면서 운운 암자기 차를 몰고 올라가라고 하였다.

사실 사고 직후라 마음도 떨리고 손도 떨렸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운전대를 빼앗았을 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떨리는 내에도 불구하고 눈이 쌓인 그 험한 산길을 무사히 올라갈 수 있었다.

만약 법오 스님이 없었다면 아마 다른 스님이 대신 운전해서 올라왔을 것이고, 그 이후로 나는 실패로 인한 패배감과 운전 공포 때문에 한동안 힘들었을 지도 모른다.

수행자라면 무릇 마음을 비우는 참선을 하고 나서 포교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마음을 가늘게 하느라 비움대로 비워본 사람만이, 부처님 진리의 가르침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다.

법오 스님은 이번 여름 안거에도 여전히 선방에 들어갔다. 스님의 수행이 무르익어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타파하는 한 경계를 알기를 바란다.

■ 청원 현암사 총무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실크로드의 길 중에 하나인 파미르고원은 수많은 서역 구법승들이 넘나들던 전법과 구법의 길입니다. 그 옛날 달이대사가 넘었다는 총령도 파미르고원을 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왕이 현재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을 정복하였고, 고대 그리스 문명과과의 접촉으로 간다라 불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사카 대왕이래 불교를 부흥시킨 카니시카 왕이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운 곳도 간다라입니다. 불교 최고의 부처님 고향상은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상과 사원 등 간다라와 파미르고원, 중국의 우루무치까지 고대 유적을 따라 순례하는 전법의 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출발일** : 1차 7월 22일 출발 - 8월 4일 도착, 2차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워핀디-탁실라-페사오르-스와트(마애불)-카라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키슈카르-쿠차(키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수미산 순례 24일

- **출발일** : 8월 23일 출발 - 9월 15일 도착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계왕국-마나사로바-파양-사가-장무-카투만두-인천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실크로드와 수미산 여행은 불교를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

滿 行 靴

가
들
한
만

행

화

상표등록 제614981호
의장출원 제35872호

극세사 (만행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망사 (만행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단화 특징** : 만행 및 포행시 단정함을 유지 (수행자 복장과 조화)

● **단화 색상구분** : 스님용 - 회색, 흑, 백 / 신도용 - 흑, 백

과학으로 탄생시킨

건강웰빙 기능성발창

만행 및 포행시 발바닥 주요경락을 지압하여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특히 몸무게 하중으로 갇혀 고생하는 발바닥 지압을 통해 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 가격 : 20,000원
● 규격 : 조절가능

제조원 : **백산아트**
만 **행** **화** www.manhaenghwa.co.kr

문의 및 주문	TEL : (02) 927-5715 H.P : 011-9000-5715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212 동협 063-12-250427 예금주: 구자민	

※ 제품 확인 하신후 구입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